자유논제

p. 108

이처럼 오랑 시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다. 보행자들의 수는 현저하게 늘었으며, 심지어 대낮의 한산한 시간에도 가게의 휴업이나 몇몇 사무실들의 휴무로 할 일이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카페에 득실거리고 있었다. ….즐거운 잔치에 참가하고 있는 축제의 도시와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.

**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왜 전염병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?**

선택논제

p.117

랑베르가 말을 이었다. “저는 단지 선생님(리유)께, 제가 그 고약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한 장 써 주실 수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.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” …….(중략)

“나는 그 증명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나는 선생이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, 비록 안다고 하더라고 내 진찰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도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염이 안 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….”

**랑베르는 페스트가 퍼진 나라에 억류된 여행자였습니다. 도시가 폐쇄되어버린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도,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. 만약 내가 리유의 입장이라면, 랑베르에게 증명서를 써줄 것인가요?**